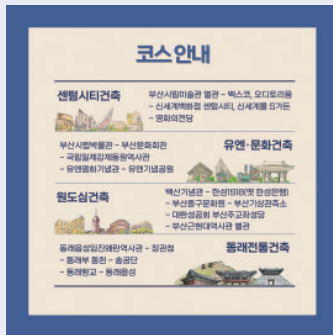


지역 건축물로 즐기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대구광역시 도시정비과 도시활성화팀
2025.4.16.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 건축정책팀
2025.4.15.



부산 건축투어 코스 및 신설 산복도로 건축코스 안내자료

출처: 부산광역시, (2025.4.15). '뚜벅뚜벅
건축투어'에서 부산의 다채로운 건축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보도자료].

대구시, 지역 근대건축물 활용한 문화거점 조성

대구시는 지역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할 15개 팀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11월까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최근 정비를 마친 '오픈대구'(구 경북민인협회)와 '무영당' 등에서 4월부터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은 소실 위기에 처한 도심 속 근대건축물을 보존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살리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시는 현재까지 도심 내 근대건축물 5개소를 매입 및 정비하여 '도심캠퍼스', '한국전전문화관' 등 공공문화시설로 탈바꿈해왔다. 최근 정비를 마친 두 건축물 또한 지역 주민과 예술인, 단체를 위한 활동 공간으로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주)태인파트너스의 '어반바이브: 취향이 머무는 도시, 연결이 시작되는 공간', ▲에임빌라의 'INSIDE DOORS 한걸음 문을 열면', ▲(주)플렉의 '대구 근대건축 미디어아트: 뉴빌드 콘텐츠 공모전', ▲소프의 'SOUND OF FLOWER (꽃의 소리)'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문화예술, 체험, 교육,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말까지 대구시 근대건축 공간 곳곳을 채울 예정이다.

부산시, 지역 건축 투어 프로그램 '뚜벅뚜벅 건축투어' 운영 본격화

부산시는 지역 건축물의 우수성과 도시문화 자산을 널리 알리기 위한 '부산 건축투어'를 내년 2월까지 매주 주말 운영한다.

이번 투어는 부산을 대표하는 도시·건축문화자산을 중심으로 총 5개 코스로 구성되며, 참가자는 각 코스를 개별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코스는 ▲센텀시티건축 ▲유엔·문화건축 ▲원도심건축 ▲동래전통건축 ▲산복도로건축으로 구성되며, 각 코스는 5, 6개 건축물을 도보로 탐방하는 방식으로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된다. 모든 코스에는 '부산건축문화해설사'가 동행해 건축물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한다.

특히 올해 신설된 '산복도로건축' 코스는 시범 투어에서 큰 호응을 얻은 뒤, 지난 5월 10일부터 정규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 운영 중이다.